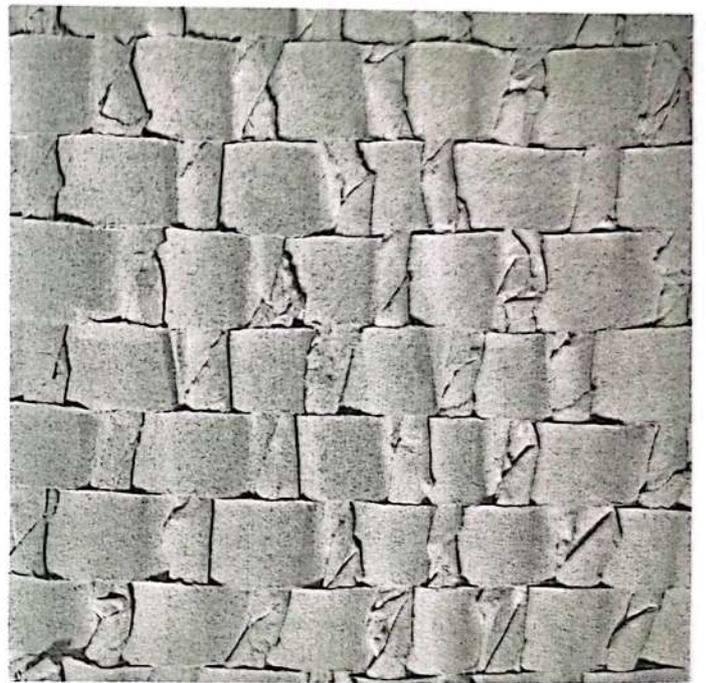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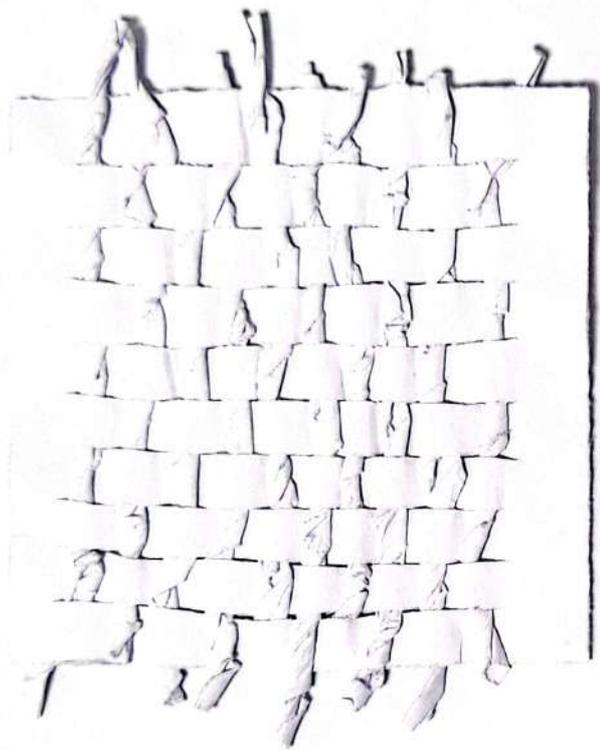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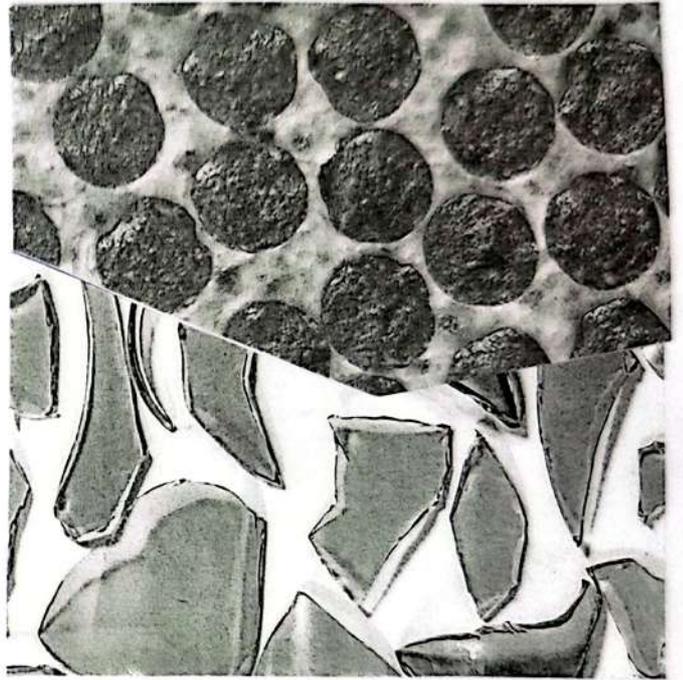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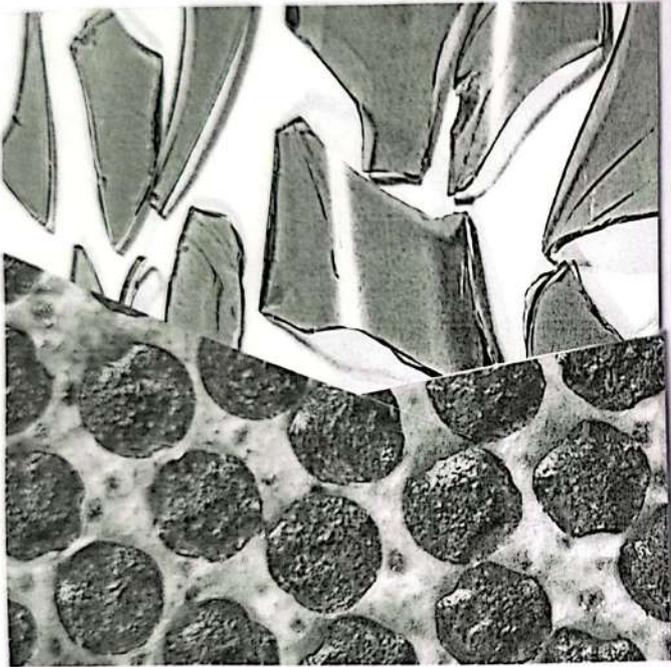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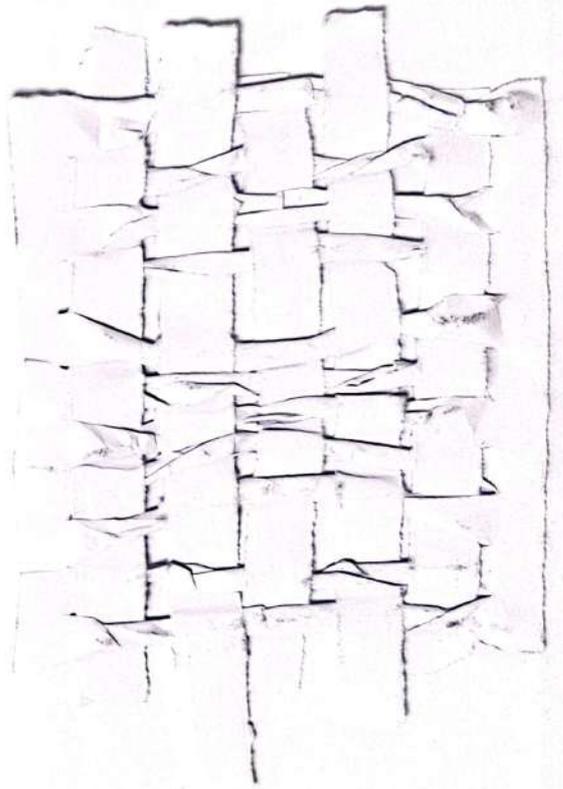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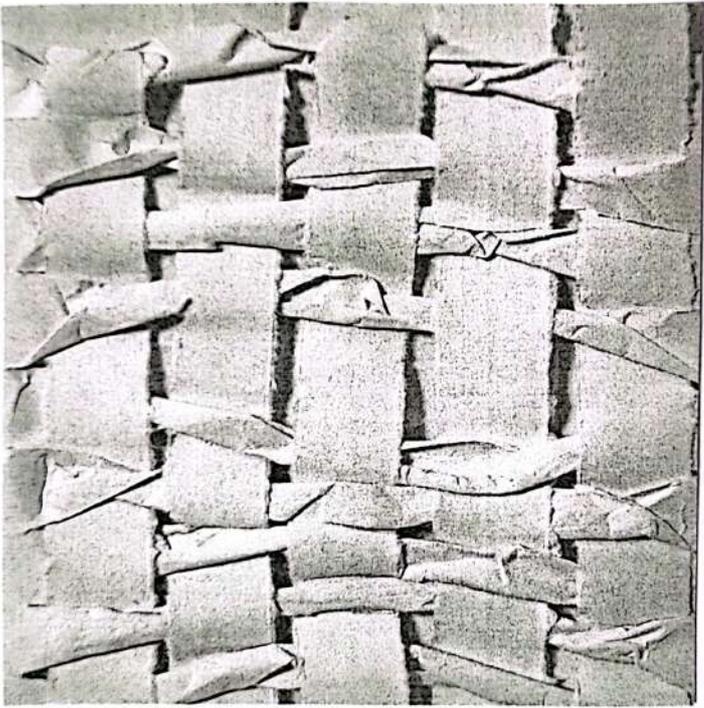


나 강









ChaCha)



초기엔 여러 기대와 새로움으로 인해
 [redacted]의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있는 [redacted]
 [redacted]이 분비가 돼
 그와 함께 [redacted]이 쌓이지 않았고
 언젠가 깨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redacted] 그리고 과정에서의
 충돌 등 스트레스 받을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도 함께
 분비가 되지

[redacted]과 코티솔의 기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파민의 분비를
 늘리게 되는건데 사람은 적응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도파민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도파민을 그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점차 [redacted]이 안정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움도 사라질테고 자연스럽게 [redacted]
 [redacted]도 분비가 줄게 될꺼야
 반대로 안정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
 으로 상대를 평가할 수 있게되고 나
 또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새로움에서 오는 [redacted]과는
 다르게 스트레스의 형태가 달라진 뿐
 유지는 되는거야

근데 코티솔도 도파민과 같이 둔감
 해지기는 하거든 하지만 반응은
 조금 달라

도파민을 받아드리는 수용체가 둔감
 해지는건 짬걸 너무 많이 먹어서 짬걸
 익숙해지다 결국 행복감의 역치가
 높아지는건데 코티솔은 짬걸 너무
 많이 먹으면 [redacted]에 짬걸 내어주는 거야



iMessage



이것이 [redacted]일수록 [redacted]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되어버리는